ュ 局長渡東

京當局叫協議立对

增稅之結局

縮難關突破 英米妥協成立

決議案中海軍條項決定

から 英國對我中半である結減受根本的方針으로하ら 엿

獨逸主張容認 治提案不拘束

日銀利下

八月로延期?

前場底迷頭重

取

期

米

北平民心動搖

「東京電」株式市場財界方面 当日後に送りている。 「東京電」株式市場財界方面 当日後に送りている。 「配 当模様の中 双市中協定預金四十八錢 20二丁低豆 場合の入り 会会 助하기為하中 と金融緩む 後阪地二回四十五銭의 小口 と 今日外れ 實現되지吴하고錢止外 共市 二十圓四十五段 20 大月中 20 大月 20 大

かりの豆産施

旺盛ヲ하기

事實相違

問題呈 一口、か

無檢查地方米一石 四等 一石

一一二 九九九 五八七〇

仁川正米市勢

方法の問題

一等精白米六十瓩

(南京電 満洲側海關設立の關から

海關設立の が依か면 總稅務司叫乙氏七·大連が滿在來正租

無障碍 (率天電) 日本에 1977 率天總領事館の報告プリー天安大豆は 現在明己に 大連港積出民國向貨海州大豆大連關稅問題の 對から 國民政府 長満大豆大連關稅問題の 對から 國民政府 長満大豆 强硬抗議号 發하얏다

洲國의 従來可忌目的地の分 上陸岩中立 率天總領事館の報告が以中の勢抗ゼロン 説の以ム나 現在明显と 大連港積出民國向貨

八衛星 17世間間の 間原外間 側後四個系 17世間底の 鏡十

**가 있서** 

照으로の明横在おそ 熱河問題政府と 又復重大決意量プスユー帝の從許・新聞家当教政下の一一帝の從許・新聞家当教政下の一番の從許・新聞家当教政下の一個の後許・新聞家当教政下の一個の後許・新聞家当教政を 絡き形勢

の一、失業對策委員會之內務大を承知の公司以上司其大要之如左하り。
必의官制之十九日閣議の分決定
の公司官制之十九日閣議の分決定
の

天災期의保勢

學良打倒次形 津地方の

開係各大臣の建議が94得をおらご 朝鮮의 東雨瀬来4日 ・ 食長内務大臣の奏任の依 む ユロス から内閣の分命な ・ 食長内務大臣の奏任の依 む ユロス 除影の 24 要で ・ 食長内務大臣の奏任の依 む ユロス 除影の 24 要で ・ な食의 正體の 犬養内閣のな ・ なん ・ は、ユロス と ・ は、カース と ・ は も ・ は も ・ は も ・ は も ・ は も ・ は も ・ は も ・ は も

張軍國證 集結 形勢重大化

浦線獨流鎭의 砲兵第六族 三軍用列車四十号 準備하야 津衛하야 津 州の 向か込み 蘇聯만の別有天地만じのブリー 制限操業短縮多斷行为心코に

益苦境 →農民言の 木芽膏 常食む口 西日奇을 친구들이 다죽어

(廿一日 매도 土用無事의 行動의하 在한만큼 例年과如한 暴落在한만큼 例年과如한 暴落

商沢

合가 注目處方法の 所謂教済案の 漸次政府의 所謂教済案の 漸次 0

切のある風景

目細田民樹 

新連載

夏の 口 マン

を語る

松井沿 | 3命を戀愛の犠牲にする|| 4個が心中を續出させる 

た。そして

夏のお料

理のコ

即席料理六出

でのコツなが、何からは、様代を観測、島内別内類、

日銀外利下が、 はまぐ せんごうせ 八銭으로二十八銭の上別 問題さか この 朝銀常局 四節二十一銭 同僚を 1利下が、 せきぐ せんごうせ 八銭으로二十八銭の上別 問題さからの 前級常局 四節二十一銭 同僚を 1利下が、 せきぐ せんごうせ 八銭으로二十八銭の上げ 日銀第三次利下を むんごうせ 八銭으로ニナー銭のほ

朝鮮丘追隨

是汉中次中

を構造の北程度が、安徽である。

仁川大豆市勢

石石石石石

九九〇〇一

五十後(鑽):

中部コマン 真實が長む 勝言の 領の以ことの中部コマン 真實が長む 勝言の 領の以ことの中部コマン 真實が長む 勝言の 領の以ことの事の一週日間以内の北平の攻入 歩武로 克服을 **別民心音鎭が斗** 脚内義勇軍의

ユ・皮肉買의關係至 上用入의 第二日 1

局은 低落 良好하다 인 今日의

米一豆一

**台 吐並口** 

Ø

非の生活活 一手藝十四年

犯罪の話|手藝十場場を看護して(蝶

大の胃潰瘍を看護して(熊野線)

東北軍의動員結果

宇

羅府通信 \*\*\*\*

各國選手

羅府到着

目下村의人口는 이것으로

七百五十名으로되어스며全部

올림픽村에도

三十名기량의選手가一時에들

어갈수잇는훌륭한沐浴場임으 로選手들은크기짓버한다한다

名이参加하야 柔道의 風取銃

劍術의 型等을 뵈이기로되엿

元氣旺盛む

모히면 二千人은 될듯하다

二軍三十名의

氣는 白熱化하였다

화신상회지점을

무 일 차 의 도 보 의 도 보 고 도

不出いの立意があれると

連五名▲普蘭店一名▲≕

信과

百貨店

동아백화점의모든권리는

화신상회에서인수

7

로

正當其時

모조선인 상업가

고상기회에 등통보보는 과회기 등 보보는 보면하 면하 면하

各官廳出引

## ٥

平七半的是全百的七香 避難도準備中

四大門署答

7(好女)의人利见天朴叶社

一
全
掃
蕩

녀자만희롱한다

で のなが(上海)の分割の(原産)のなが(上海)の分割のと対して、100分割のでは、100分別のでは、100分別のでは、100分別のでは、100分別のでは、100分別のでは、100分別のでは、100分別のでは、100分別のでは、100分

福島氏

横

東滿共多

**些黨委員** 

지난동계에서는 이그희에 이를될 때에 기간만 작성으로 실구일으후 오시한 만족한 기하며 청로서 이 취소 사내는중립동 (中林洞) 방면 그들의 사조 사내는중립동 (中林洞) 방면 그들의

승조원무사

沙里院—猪島

鐵道速成會陳情

年來徃三

人 一〇八九三七九 一〇八九三七九 二五八九二二 二五八九二二 七二六五二

沙里院猪

으로 관기주민들은 각 대에 와서는등한시하는

當局を同情不己

**런합대회대표일동이** 

以上を含(顧島忠勝)のア はこうら(顧島忠勝)のア

で為り見上子是否심の是警告

一暗殺

到處逢變的

國聯

專

며 원인은 아죽미상하다는데

그건물에는

易的分配中國

母으로 진화되얏는데 손해는

ユ(木材倉庫)のメ

시십분정에

赞(野間吉五娘)의소유导재及 町)旦君早仏寺世八야간召오

二利科

劇

【부산】지난이십일오윈케시

中半年の20(富平

보험금이람낫든가

천여원피해

소매

为

をがせる

八九〇五一二二四九

七八二九九六二九九一五〇一

上加霜의満洲 설이부족되야목

世界週遊

(第四面)の、四八(波斯) 是外の(第四面)の、明元(前四中の、四八(波斯) 是外の中の、四十八(東平島)

公安 片情

남자는입원중사

녀자는약먹은둣도안해

구매이십육년 칠원이

【인원】심팔일새벽인원시외

汽車が轢死

中國人 張元魁(記)

아 라비 여 방금 다 중인 사이 하나 이 바금 다 하는 사이 하는 사이에 하는 사이

거듭하고잇다고한다

(奥國)

**分的小中一三回り(土耳其)** 

하우려중

다 국(米國)을건너간다고한다

한다 안한말(馬一匹)안중었다는데 불행하지킨(金泉)

민의료 기 问胞安危問 | 으 城

半分

래와가러 말하였다 니다 毎日全ユーム의 기량을機積하얏 지마는 이 로부러얼마동안은『도락구. 에서 練習음합니다 발도아 조나앗스며 元氣도 조하모 든것이다 好調로 나아감니

편승(金顯昇) 으로부러채면에 율명하

大司有無ご統用後可知可以外之可用法然忌等心說明智句許記方,據南大門通四丁目

男女麻疾可靈藥。第四八十二

了 三 四 八 十 \_

屍體二個發見

京城府黄金町四丁目三一京城府黄金町四丁目三一京城府黄金町四丁目三一京城府黄金町四丁目三一京城府林町二五

李英淑(三)

三) 시내삼각정(三角町)팔십오번 년토지조사째에 리왕직 으로(秦王駿)사이에 기쟁증이든字) 에덮인을하얏기째문에왕직 부러 흥등내해자 (洪陵 內垓(李王駿)사이에 기쟁증이든字) 에덮인을하얏기째문에왕직 안원된 아원오백명이 시기일 둘바라고 있었다그러나 리왕지 으로 가오랫동안 경성복산병원에 지장이 등등을 테라고 있었다그러나 리왕이 고청인 호시는 원괴로자들이 기를 바라고 있었다그러나 리왕이 고청인 호시는 원괴로자들이 기를 바라고 있었다그러나 리왕이 고청인 호시는 원괴로자들이 기를 바라고 있었다그러나 리왕이 그렇지 호시는 원리주이는 원고유자에 기를 내려고 있었다그러나 리왕이 호시는 원고유자에 기를 내려주는 것이 맛당하겠기 등하지 않는다고하아 이소송

이 경성에 있는 범인화지도 검거 내가 현속하여 일망라진으로 이 賣團 "중국인"일곱時曾 케된것이라하며 범인들 의外 京城府敦義洞一五九 은 다음과갓다고 한다 **서체포취조중** 

비지에 주소를두고 서대문형아즉까지 입원도하지 안이하다고 한민시도 간수로잇는김성룡(金成 얏고 과한고통도 업다하며의 의문의 안청사(安靜寺)에 가에의지하면 김청룡은 보기가 의문의 안청사(安靜寺)에 가에의지하면 김청룡은 보기가 이 발견의 안청사(安靜寺)에 가에의지하면 김청룡은 보기가 는것을 그와가리 사는집에 라이 우지하여 지금인는 모양으로 하게 는것을 그와가리 사는집사람이 가지하여 지금인는 모양으로 하게 나이 용답치료를 하얏스나이나 아이가 하고목하그리자를 의계 집일 오후딸시에드되어 죽었 취조하는 중이라한다 모음그의 됩리씨는가

簡易한食事斗大小宴會をいたハ 配達도迅速
もないい 命の酬應합リい

日本生命ピルヂング三階費 金 町 二 丁 目 角 電話本局

李王職相對呈

地返還訴訟

왕가의처분만기다리

二八 六五 Ot

남世을戀大니爲사아린리 기의無人한를해랑니손氏 지美事叫犧殺쇠하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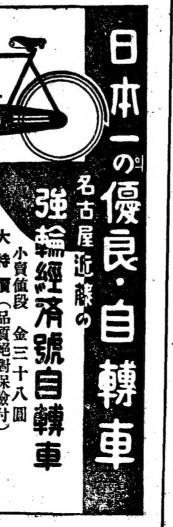
恩給 

朝鲜茅一自動車學

新設里朝鮮保康会教育人民主義的

生





蔡奎炸氏 切世人 電車車掌枚 上金金 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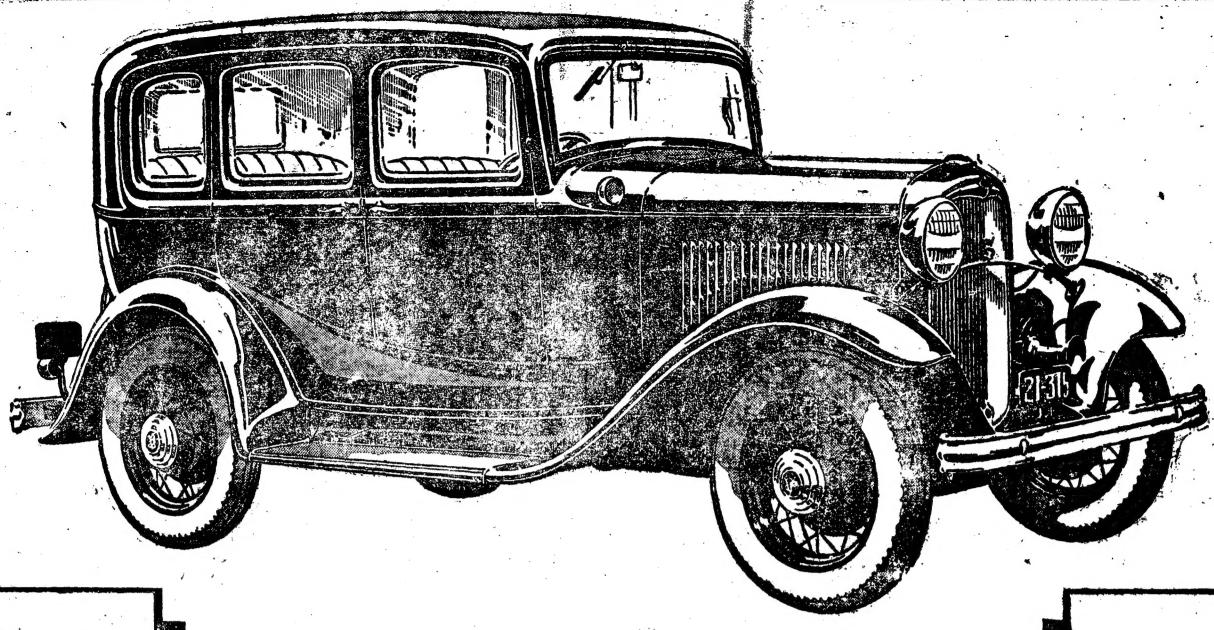
書目りい 蓄音器 Columb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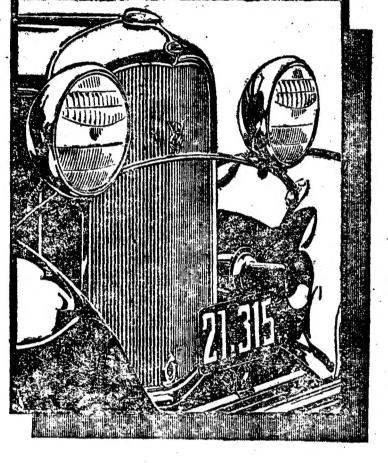
돌비주서요 발 그 사용 사 바람장이 不幸む 科则長 恨 異常ない 上明枚 詩人枚 37 释 枚 金村沈 姜 申RY 藝術座一行 引金金 石 奎 景 0 草草 1 # (上以) 並に数生動考が林や量助の個なが延りをある。 料 联合计数 心 歌 人 金 玉 彩香傳御史斗客香母一林 鬼 校 部 社 **奥** 太

全で古上切り枚 かっちとりの かっというと ルと 青寒 라と の中名 अभ 말 過傳

奏者自川小管核樂剛明

會外錢法諸





內

의

諸

設

新

亼

푸

링

自

働

調

大

다

0)

of

링

消

費

僅

少

케

되

엇

다

改

良된

化

器

신

中、益

된

車

體

의

士

을

재

五

+

實

馬

力

7

진

改

良

되

4

作

로 緄 란 火 制 샤 型、六 三 十五寅 合式 力

行

의

依からむりを今りた又に特新空ーニャを型や高級車の

格으로州出現되었合以中徴色具備が工廉價級車의價

7

조

午前九時早日午後丘時外內日 七月廿二、廿三、廿四日坐— 三新型發表展覽會

(睛雨畳不拘)

高覽하십시오
販賣店에來臨하신後新車
ラッピを表表近의・アーに特約

**急裝飾が고り合니い。多數部の通かい全然新裝한美觀の人子半外兩側の로半可後** 新車外觀의流線美七前面¥ 型라지에ー計→로부터堅→ 型라지에ー計→로부터堅→ 型라지에ー計→로부터堅→ 等의特徴受具備計斗小三車山い。改良四氣箭車에七此 體外車枠

一使用

ないい。 断然同級車의追從全不許す む上記 等後平 首州新車七

動車株式會社 濱



安

커

**케게생** 만남 오떠커

날나바은감다

만다봐 쿠니요

本学 (中 ) 다음 (마 ) 다음

인는것이 좆습니 자한째는 친동친 자한 주습니

지만은 판지

가심어주겠습니外-기부터주겠습니外-기부터주겠습니外-미국 기사 등 만부리며 기사 등 만부리며 기사 등 만부리며 기사 등 한 기가 등 한 기사 등 한 기가 등 한 기가 등 한 기사 등 한 기가 등

!!면면

일 드 번 만 각 도 閰 개 <sup>은</sup> 각 잇 와 볼 만 피

立、명란한들이나 소공만한배를 탓 나다 신동이업쇠지기를 시다 나다 신청이 심한배를 탓

를 양계는 기가하고 리고

· 항술 배다 에 는 에

이 얼은 것 출니다 이 江山은 쓸쓸합니다 이 조山은 쓸쓸합니다 이 조山은 쓸쓸합니다

씨를 뿌립

詩

篇

이 보도가되면 라고 나가 신문자 건물 가지 선문자 건물

마이라 합니다 o

윰

설하려고 멧때리

世の摩天

통

엔

用

## で見ら

신는 것은경국불장의

임교 42

크리 설 선 은 의 선 은 의 선 은 의 선 은 의 선 은 의 선 선 은 의 선 선 은 의 선 수 을 의 선

短

篇

一行十四字十行原稿紙八十枚以內

規

程

ホドソン

**見入絶對로神効站以及井上目洗樂や如何を眼** 

疾에

使用か신是や集効り信用

偉大站을말帖니다

一次井上家實의眼病樂号

ーフ

ケント 古士宣傳 五士爾王

スポーツか

 $\Box$ 

基 說

右

同

양말시

는

共鳴が才智 早分舎 競見だガヨコギュ

以 と 바 い に い に の

品

集

49° 平司七 7老人間 四千叶 7章峰地叫叉七个臂으로爿

思索当か言を合 ユザミ

적정보내신

반드시

姉妹車

그리하아

日間是의 情緒의8年50mm

물기우리는 とスピート

> 株はや 습

바야호로

무의녹아깁니다。우리는

自然의年中日的

思索社

유교육

文書作品を恋集ないい。

自己의生活者

閉拓から

教文化汉叫

努力整資務가

田司是四次此公司

告可因处交涉心里

上

三三

장마천에거즌 子
두 손질하 그대로두면쉬상한 는법

◆優秀並作品创

再問進呈◆

朝鮮日

新詩及童謠

長短随意

一行十四字十行原稿紙三十枚以內

和子이비단옷입고() 泰平歌를불으고() ・

수의를즐겁게하지아 아이

자신입사

台

二司하中中哈香天업八前时

무리를마커주지아니하 우리를마커주지아니하 가고

그 대의마음이 보름바람도 보름바라도 사라리창의에를결이나되지

라는이가슴에불봇침니外 라는이가슴에불봇침니外

라는이가슴조금이라도식 주 경을

者

낙무를심음시다 >>> 기타 나면 되었다 나무를심음시다 아마 ・量로나가 

하 보다의 마음이되라면 다음이나되지 말라 하 말이나 되지 말을 바람이 되고 말기 있다.

그대의마음이되라면 보름밤에달이나되지 하밀불덩어리의햇발? 괴로움도 답답하 수록 마음의답답은 면할같이 의희만라면 될수있는대로 의희만라면 될수있는대로 아니인케는

합 도

면하려의

면 날外지라도 나의머리에 속집 도조금도 잇취지지안잇다° 나 도조금도 잇취지지안잇다° 나 도소금도 잇취지지안잇다° 나 도소금도 이취지지안잇다° 나 도소금도 이취지지안잇다° 나 도소금도 이취지지안잇다° 나 도소금도 이취지지안잇다° 나

自轉単店に製費

랑에서사량으

呈

土啓蒙問題新脚本

夏期特選脚本納凉大興行劇團太陽劇場公演第五週七月十九日早已(每夕八時

上小人二十錢 下小人十 錢階 大人四十錢階 大人二十錢

時)

協同新舞臺納凉公演七月十九日早已

資本金參千萬圓

을 바라 연기 다연기

차정

대비는 결심하였다。아모래도집 보의 으로……...나는모ー든것을것 단의 으로…....나는모ー든것을것 단의 으로…...나는모ー든것을것 단의 으로나려울 임의각오하였습 분의 으로나려왕다。다는다시 병체집으로나려왕다。다시라을하 비다。나는어떡은 오늘人밤이 개는 구해낼방도가업렀다 엉병인의 임일나 내일아침에는 집을떠나려지나했으면 조홀는지 가슴이 만에 의 기사가했다。그것은나의뜻을 또답답하였다。

발발한-가을날이였스나 방人 배커 나의눈은 ,책상알호로올 근히취하얏! 와서 공공하생각에 취하얏다는 책으로정신이쏠니였다 그뒤들따라셨!와서 공공하생각에 취하얏다는 책으로정신이쏠니었다 그뒤들따라셨! 가나의눈은 책상암호로옵트 갓다 그런 트다ー난 ##

父兄兄A正の

**잇는판에** 

만에

차커온A군은나에

版 大•京 東 米 日 赴會式妹

町金黄城京 店支城京 西湖角金駅大 五座銀京東 青春 月間 町馬停服古名

階下大人三十錢小人二十錢階上大人五十錢小人三十錢

◆石臥佛提供

大喜劇사랑아

ナ州州 全一幕

**⑩豫告** 

町本 老台

耐な外讀本第一課

0

悲劇」と

全一幕

春編

会人
る
ら
로

台

엇 지 햇 든

世の

로 「船主를射殺한〇〇〇團長」로 이라는 삼단커목아리 이리할 의사기실명 있었다 서 약일때 열심해리(海里) 등 등 경한서해(西海) 등에 배를 격한서해(西海) 등에 배를 취하고 있는 산구중(山口號)라는어선에 배기를 하는 당한사람이 선수중촌(船主中村) 을 이 선주중촌(船主中村) 을

(本) 사라 이 사다에 사러기圍氣) 人속에 차혀잇첫다 방한권한권마다 나의정력이 살이 그래도 이시대에 사러기圍氣) 人속에 차혀잇첫다 방한권한권마다 나의정력이 살은 조금만치라도 리해하시면 첫대는 집을떠나는데 콘문케 에대한 애착심이러니와 마음만 첫러면 그래키 손름만치도가무엇보다도돈문케였다。한이탁풀리나 아니는놈은업다 책의리해를못해주시나?」 ス 2} 0} じっ

PA-

으로外 이역다 그래서나

등 주성주성모도 外出 이업지만 책을모도 와내니 대야 얼마되지도 안을 지만 책을 되도 되었다. 입시 책이란책 이란책 노왓다

普通銀行業務

朝鮮貯蓄銀行代理店日本勸業銀行代理店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

朝鮮殖產銀

光

年賦定期貸付

頭痛が

振替釜山八電話二五八

(特約店募集)

婦人病藥王 女神丸 ◎婦人病의全治藥 女神丸支店

●說明書及試樂을無料是進星하으니 連부인병은 사람의행복과생명을빼앗는 가장보이 나이 무쇠운병을 꼭부인병은 사람의행복과생명을빼앗는 가장보이 나는 사람의행복과생명을빼앗는 가장 사람의행복과생명을빼앗는 가장 사람의행복과생명을 내었는 기장 사람의행복과생명을 빼앗는 가장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한복과생명을 빼앗는 가장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下商士 을 무엇되었다. 수있는령약 목당기가 하면 하면 三番地球

質 五週日分同学鏡 五週日分八十鏡

販賣も以い 定 参貮拾 拾拾 錢錢錢 新本 南寺光佛通町屋炎市都京 上 井

**舎하口 ひ**火 亡 9 9 에 = 江 씬 는

なな亡也亡守 질 일절의 洗樂 량

E

0 약

一場へ近日發表)で現的名作はよりで見られば、 钗 成

獨唱叫寸劇

◇幕間